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보도자료	2026. 7. 7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미래농업육성과장	양석철	☎ 760-7300
		업무담당자	문애경	☎ 760-731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,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기본계획 수립

- 2030년까지 584억 투자계획,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체계 기반 마련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종자주권 강화를 위해 ‘제1차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기본계획(2026~2030)’을 수립하고, 향후 5년간 제주형 종자산업 육성과 신품종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.
-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종자 공급 불안 등으로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안정적인 종자생산 공급이 부각되고 있다.
- 특히 제주 주요작물인 감귤과 채소류의 해외 종자 의존도가 높고, 이상기상으로 기존 품종의 생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어 제주 환경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
-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「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기반으로 제주 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.
- 이번 계획은 ‘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의 미래, 고부가가치 종자사업 허브 조성’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총 584억 원을 투입해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.
- 첫 번째는 우량종자 생산·보급체계 구축이다. 감귤, 브로콜

리, 마늘 등 8작목에 53억 9,900만 원을 투입해 △과수 신품종 확산체계 구축·보급 확대 △지역 맞춤형 채소 우량종묘(구) 및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·보급을 지속 확대한다.

○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이다. 아열대 과수 등 13작목에 82억 7,900만 원을 투입해 △고품질 감귤·아열대 작목 육성 △병에 강한 채소 신품종 육성 △내병성·내재해성 식량 및 사료작물 품종 선발을 확대할 방침이다.

○ 세 번째는 지역육성 품종 확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5 사업에 447억 5,500만 원을 투입해 제주 육성 감귤 품종갱신 지원과 지역육성 신품종 및 토종종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가 현장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종자산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.

□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제주 환경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, 안정적인 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김경익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“기후변화와 소비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,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종자 생산·보급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” 며 “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